

한국의 유교와 사회적 기능

최 병 철

(청주대학교)

I. 머릿말

‘아시아적 가치’로 대변되고 있는 유교가 이른바 IMF한파로 말미암아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또다시 도마 위에 올려진 채 회자되고 있다. 서구 사람들은 한 때 잘 나가던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 또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 가운데 하나로 찬양한 바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의 이러한 비약적 경제발전을 놓고 그 근본 원인이 전통적인 유교이념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유교를 아시아의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유교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용어까지 배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IMF위기를 만난 근자에 이르러 다시 한번 누군가에 의하여 그 책임을 유교에 돌리는 성급한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국사회는 다시 뜨거운 공자논쟁으로 불이 붙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한국의 IMF위기의 원인이 유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유교만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IMF위기를 만나지 않고 아주 잘 살아 갈 터인데 유교적 사고와 끼리끼리라는 공동체적 관습이 아직까지 잔존하여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역으로, 만약 한국경제가 IMF한파로부터 신속히 벗어났을 때에는 누구의 공파로 돌릴 것인가? 그 때는 다시 유교의 덕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전통적 문화가 몇 년 사이에 소멸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문화는 재음미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아무튼 유교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안고, 한국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여 왔음을 입증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유교는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사회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테면 자연에 있어서 하늘과 땅은 각각 독립성을 견지하면서도 상호 관계하여 하나의 '천체'(天體)를 이루어 각각의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에 있어서 남과 여는 각각 인격성을 확보하면서도 상호 관계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생육한다. 철학적 견지에서, 유교의 이론은 음과 양이 각각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관계하여 하나의 '태극'을 형성하며 삼라만상의 생성소멸에 작용한다는 이론체계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인간 내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개념적으로는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관계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어 공동의 '윤리' 또는 '법'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공동체 이론을 유교에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이라고 일컫는다. 유교에서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관계를 흔히 '천륜'(天倫)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도 모두 천지가 몇 번이고 개벽하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도 결코 바뀌어질 수 없는 절대 불가분의 인간간계를 뜻하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하늘과 자연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연의 변화 법칙을 인간관계 내지는 삶의 원리로 삼는 자연법사상도 역시 '천인합일'의 범주로 풀이되어 왔다. 하늘과 인간 또는 자연과 인간의 이러한 합일관계와 마찬가지로 지상에 사는 모든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로 형성되어 진 '천하'라는 개념도 역시 공동체라는 합일관계인 '천하일가'(天下一家)로 규정하곤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교에 있어 '국가'나 '가정'의 경우도 결국 사회적 통합의 명제인 '일가의 원리'라는 사회공동체이론의 일정한 범주로 정립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교는 자연발생적 통합의 원리를 갖춘 사회공동체 이론체계라고 간주할 수 있다.

II. 유교의 본질과 한국적 전개

1. 연원적 고찰

유교는 공자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이를 믿고 따르는 사회적 구성체 일반을 일컫는다. 그러나 공자의 사상은 공자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창작한 논리체계가 아니라 공자 탄생 훨씬 이전의 요(堯)·순(舜)·우(禹)·탕(湯)·문(文)·무(武) 및 주공(周公)의 사상과 덕망, 그리고 그 치적을 적절히 기술하고 집대성함으로써 일가를 이룬 역대의 이론체계이다. 공자가 “요·순에 관하여 조술하였고, 문왕·무왕을 헌장으로 삼았다”¹⁾는 말이 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대로 진술하였을 뿐 새로이 창작하지 않았으며, 다만 그것을 믿고 좋아 하였다”²⁾고 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이 앞선 성왕들의 치적에 근원함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유교의 연원은 요순시대와 하·은·주(夏殷周) 삼대문화에 근거하며, 내용은 『서경』(書經)을 비롯한 유가경전에 두루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요순에 관하여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년 전의 공자를 비롯한 묵자 또는 맹자 등에 의하여도 자주 언급되었다. 뿐 만 아니라 이러한 사상적 배경은 중국 역사상 하나의 거대한 철학적 물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근·현대에 이르러 요순의 실재성 여부가 논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실재성 여부는 고고학이나 문헌학이 규명할 분야이고, 다만 논자는 요순의 실재성보다는 그 책에 나타난 철학이나 사상 또는 종교적 언급 속에 담긴 내용이 어떠한 진리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상이 오늘날 어떠한 철학적 가치 내지는 의미 연관을 지니고 있는가에 주목하고자 할뿐이다.

요순시대는 특히 유교의 이상사회로 일컬어지는 시대상이었다. 이러한 때를 유교는 ‘대동(大同)의 사회’라고 표현하였다. 대동의 사회는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살기 좋은 사회로서, 천하를 사유화하지 않고 공공의 소유로 삼는 평등사회이다. 현명하고 유능한 인물이 발탁되고 신의를 중시하며 화목하게 살아간다. 사람들은

1) 『中庸』, 제30장, “仲尼祖述堯舜, 憲章文武”

2) 『論語』, 述而, “述而不作, 信而好古, 竊比於我老彭”

유독 자기 부모만 부모로 받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식만 자식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노인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편안히 모시고, 장성한 사람들은 모두 직업이 있으며,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 홀아비, 과부, 고아, 독신, 중환자들을 잘 보살피며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다. 재물을 자기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힘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간사한 자가 생기지 않으며, 도적이거나 난적이 없어서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회가 바로 대동의 사회인 것이다.³⁾ 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하나의 이상이지 반드시 그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와 같이 유교의 연원은 유교경전에 밝혀진 요순시대를 비롯한 하·은·주 삼대문화가 그 사상적 기초를 이룬다. 특히 공동체이론과 관련하여는 일가(一家)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천하국가로 점차 확대되는 공동체 사회의 구조적 원리는 이미 이 때에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가경전에 의하면 천자(天子)와 제후(諸侯), 그리고 천자국의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 제후국의 경(卿)·대부(大夫)·상사(上士)·중사(中士)·하사(下士)등의 오복제도(五服制度)는 국가 공동체의 구조적 원리에 해당한다. 또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태사(太師)와 부총리에 해당하는 태보(太保)·태부(太傅)가 있었다. 오늘날 국가원수 아래 총리 또는 수상이 있고, 그 아래에 각부 장관이 있는 현대 국가 조직체계의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현대의 국가도 결국 그 구조상에 있어서 유교의 연원에 나타난 국가 구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례』(周禮)는 공자가 꿈에도 그리던 주공이 저술했다는 책으로서,⁴⁾ 거기에는 '천관총재'(天官冢宰)를 비롯한 지관(地官)·춘관(春官)·하관(夏官)·추관(秋官)·동관(冬官)등 크게 6개의 조직체계와 세부구조로 국가체계를 이루고 있다. 현대 국가 공동체의 원형이 공자 이전 중국에는 이미 체계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3) 『禮記』, 禮運편. 참조

4) 『周禮』의 작자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지막 '동관'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공의 저술로 믿고 있다. 다만 그 책 속에 담긴 방대한 조직체계가 역사적으로 한번도 그대로 적용되었다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고, 국가조직과 관련한 하나의 이상적 패라다임으로 여겨진다.

2. 유교의 본질

유교사상은 넓은 의미로서의 통일체 원리를 갖는다. 공자가 『논어』에서 ‘일이관지’(一以貫之)라고 한 말도 따지고 보면 자신의 학문이 통일적 일관성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표현된 ‘천인합일론’이나 ‘천하일가’라는 개념은 사회적 통합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삶 자체를 통일체로 간주한 표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늘을 대우주로, 인간을 소우주로 간주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주론이라는 통일적 일관성을 유지한다. 다만 여기에는 ‘사회’라는 공동체의 원리와 ‘인간’이라는 개별자의 원리로 나누어 설명되어 졌던 것이다.

첫째, 사회적 관계로 볼 때 유교는 가족공동체 원리에 기초한다. ‘일가’의 원리나 ‘국가’의 원리나 ‘천하일가’의 원리가 모두 가족이라는 사회 구성체 원리에 근거함을 말해 준다. 따라서 유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최초의 사회공동체는 ‘가족’이다.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천하국가’가 된다. 그러나 더 넓게 살핀다면, 천·천하·국·가·개인 모두는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되며, 동시에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같은 하나의 원리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천하국가’는 천하인류가 구성하는 궁극적인 하나의 사회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 천하국가는 ‘천·왕·민’ 삼위일체의 구조로 형성된 유교적 사회공동체 이론체계이다. 그리고 ‘천·왕·민’은 ‘천명’과 ‘왕도’와 ‘민심’에 의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천하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이론이다.

둘째, 개별자의 원리로 볼 때 유교는 인간의 본성(本性)에 기초한다. 맹자에 의하여 ‘언제 어느 곳에서도 천명 아님이 없다’고 하였다.⁵⁾ 천지만물은 물론 인간에 있어서도 천명에 의하여 그의 본성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하늘이 준 바이므로 순선(純善)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은 마땅히 하늘이 준 본성에 따라 착하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주어진 본성에 따라 그렇게 착하게 마땅히 행하는 바를 도(道)라고 하였다. 도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가 있으며, 동시에 직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가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도를 인도(人道)라 하고, 왕이라는 직분에 적용되는 도를 ‘왕도’(王道)라 한다. 왕위

5) 『孟子』, 「盡心章句上」, “莫非命也”

또한 천명에 따라 결정된다. 왕은 천명을 부여받아 왕위에 오르나, 인정(仁政)과 덕치(德治)에 따른 왕도를 행해야 한다. 반면에 힘의 통치는 패자(霸者)로 규정되며, 규탄 또는 타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왕도는 반드시 민심을 따라야 한다. 그만큼 국가에 있어 민심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민심의 절대화는 유교에서 말하는 민본사상의 핵심이기도 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늘은 민심·민의를 따르게 된다.⁶⁾ 왕위는 하늘이 준 자리요, 만인이 준 자리이다.⁷⁾ 그러므로 만약 왕이 민의를 저버리고 패도를 일삼아 민심을 잃게되면, 마침내 민은 천과 더불어 그 왕위를 다른 덕있는 사람에게 주게 한다. 이것이 민본사상에 입각한 유교의 ‘혁명론’이다.

결국 유교는 천명에 근거한 착한 인성(人性)이 부여되었으나, 사람마다 기질의 차이로 이를 다 발휘하지 못하여 성스런 지도자를 찾아 그를 지도자로 삼고 스승으로 삼게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착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모두가 각자의 직분에 따른 정도(正道)를 지키고,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평천하’(平天下)의 대동사회 건설을 이념으로 하였던 것이다.

3. 한국 유교의 성립과 발전

공자를 최고의 스승으로 하는 유교의 역사는 ‘도통’(道統)의 원리로 전개된다. 그것은 성왕의 도이며, 공자의 도를 뜻한다. 도통의 계승을 유교에서는 ‘시중지도’(時中之道)에 따른 전수심법(傳授心法)의 원리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공자이후 도통의 계승자는 증자·자사·안자·맹자로 이어졌고, 그 후 한동안 끊어졌다가 한나라의 동중서, 당대의 한유, 정현, 공영달등과 같은 인물이 나왔으며, 송대에 와서 주렴계, 소강절, 장횡거, 정명도, 정이천으로 이어지며, 주자에 이르러 이른바 ‘성리학’ 또는 ‘신유학’(新儒學)이라는 대명사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송대에는 유학 이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 성리학은 다시 조선에 와서 활발히 탐구되었고, 한국의 독특한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6) 『書經』, 泰誓, “民之所欲, 天必從之”

7) 『孟子』, 萬章章句上, “天與之, 人與之”

그러나 한국의 유교가 언제 어떠한 경로와 어떠한 방법으로 전래해 왔는지는 확실치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고구려 소수림왕(少獸林王) 2년에 최초의 국립대학을 설립하였다는 것과 당시의 교과과정이 유교경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밝혀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유교의 한국 전래는 그 보다 훨씬 전이었음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특히 공자는 『논어』에서 한국을 향하여 “바다를 건너 구리에 가서 살고 싶다”, “그곳에 군자들이 살고 있다”⁸⁾ 라고 하였다면, 공자가 그리던 군자문화는 바로 구이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구이문화는 곧 유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유교문화의 뿌리는 쉽사리 그 시대를 분명하게 규명할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한자의 사용조차 그 시기와 경로를 알지 못한 바 거의 유교문화는 중국의 역사와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에 설립한 ‘태학’(太學)에 연원을 둔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기도 하다. 물론 백제에도 국립대학이 있었으나 그 명칭과 연대는 확실치 않다. 신라시대의 국립대학은 경주에 국학(國學)을 세웠고, 고려 개성의 국자감(國子監)과 성균관(成均館), 그리고 조선에 이르러 서울의 성균관으로 이어져 오늘날에는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로 이어졌다. 인물로 볼 때, 신라의 이두문자를 발명한 설총(薛聰)과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최치원(崔致遠), 고려의 해동공자 안향(安珦)과 단심가로 유명한 충신 정몽주(鄭夢周) 등과, 조선에 이르러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김인후(金麟厚), 이이(李耳), 성혼(成渾), 김장생(金長生), 조헌(趙憲), 김집(金集),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峻吉), 박세채(朴世采)등이 ‘아동방십팔현’(我東方十八賢)으로 성균관 문묘에 배향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문묘에 배향된 인물 외에도 조선에 이르러 수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학문적 업적에 있어서도 커다란 금자탑을 이루었다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유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태학’의 설립 이래 1,600여 년간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문화적 근간이요, 커다란 학문적 산맥을 이루었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대 조류를 형성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8) 子罕, “子欲居九夷, 或曰陋, 如之何,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한국에 있어서 유교는 국가체제 확립과 학문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유교를 통하여 한국인의 정신과 사회 공동체 의식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고려를 지키기 위하여 정몽주 선생과 두문동 72현의 선비정신은 후대의 좋은 사표가 되었고,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철학정신, 그리고 이황 선생의 학문정신과 율곡 선생의 개혁정신은 많은 후학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다. 훗날 가깝게는 조헌은 임진란을 당하여 의병장이 되어 장렬하게 전사하기도 하였고, 학문발전에 많은 기여와 후학을 길러내는 원동이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에는 무려 365개의 향교(鄕校)를 나라에서 설립하였고, 사립학교인 수많은 서원(書院)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조선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교육과 교육 문화 수준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 졌다. 이와 같이 유교는 한국정신을 일으키는 원동이 되어 왔던 것이다.

III. 한국 유교의 사회적 기능

1. 한국유교의 의례

옛부터 중국 사람들은 한국을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또는 ‘군자국’(君子國)으로 불리어 왔다. 『후한서』(後漢書)나 『漢書』에 의하면, 우리를 ‘동이’(東夷)로 지칭하는 가운데, “천성이 유순하여 도로써 쉽게 다스리는 군자가 죽지않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구이에 가서 살고싶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⁹⁾ 뿐 만 아니라 『산해경』(山海經)에서는 “동쪽 입구의 산에 군자의 나라가 있다. 그 사람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검을 차고 있으며, 그 사람들은 성정이 유순하여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¹⁰⁾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그만큼 우리 나라가 옛

9) 『後漢書』卷85, 「東夷列傳」, “東方曰夷, 夷者低也, 言仁而好生, 萬物低地於出, 故天性柔順, 易以道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故孔子欲居九夷也.” 『漢書』卷28, 「地理志」, “東夷天性柔順, 異於三方之外, 故孔子悼道不行, 設浮於海, 欲居九夷, 有以也”

10) 『山海經』14, 「大荒東經」, “有東口之山, 有君子之國, 其人衣冠帶劍, 食獸使二大虎在旁, 其人好讓不爭”

날부터 예의문화가 잘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중국인 자신들 보다 앞서는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한국이 먼 옛날부터 유교문화 또는 의례문화와 관련한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유교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반드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학적으로 아직까지 한국 유교의 의례 일체는 유가경전 가운데 삼례(三禮 : 『周禮』 『儀禮』 『禮記』)에 근원한다. 『주례』는 주나라의 국가 체제를 망라한 책이고, 『의례』는 각종 의식일반을 다룬 책이며, 『예기』는 전자를 제외한 천문·지리·인사 전반과 철학으로부터 일상적인 행위전반에 걸쳐 그 원리를 종합 정리한 책이다. 특히 『의례』는 당대의 정현에 의하여, 길례(吉禮)·흉례(凶禮)·가례(嘉禮)·군례(軍禮)·빈례(賓禮)등으로 구분, 이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라 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관례(冠禮)·혼례(婚禮)·상례(喪禮)·제례(祭禮)등의 사례(四禮)와 사상견례(士相見禮)·향음주례(鄉飲酒禮)·향사례(鄉射禮)등이 포함되어 있고 조정에서의 종묘제례(宗廟祭禮), 학교에서의 석전(釋奠)이 있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군례’나 ‘빈례’는 정부가 서구식으로 주도하고, 그 외의 의례는 각 종단별로 또는 개인별로 자유롭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유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표적 의례는 ‘석전’이다. 석전은 원래 학교의 축제(Festival)이다. 즉 ‘석전’은 학교의 문묘(文廟)에서 앞선 스승(聖賢)에게 학문의 정진을 다지는 축제로서, 과거 역대 국립대학이었던 성균관과 지방 향교에서 유교의 전통으로 매년 음력 2월(봄)과 8월(가을) 上丁日 두 차례에 걸쳐 거행된다. 조선시대에는 중앙국립대학인 성균관과 전국 365개 향교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오늘날은 남한의 231개 향교와 더불어 년2회의 ‘석전’행사는 물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례(焚香禮)가 행해진다. 분향례는 공자의 신위 앞에 세 번 향불을 태우는 간단한 의식이다. 그러나 석전례에서는 공자의 신위뿐만 아니라, 안자·증자·자사·맹자등과 송조육현(宋朝六賢), 그리고 ‘아동방십팔현’의 신위 앞에 함께 술과 생식을 진설한다. 이 때에는 64명이 추는 문무(文舞)·무무(武舞)가 있고, 당상악(堂上樂)과 당하악(堂下樂)이 있으며, 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와 음복례(飲福禮)등이 행해진다. 중국의 석전은 공자와 그 제자들만 기리는 행사

인 반면, 한국의 석전은 공자와 그 제자 및 한국의 18현등 성균관의 선배학자들까지 함께 모신 가운데 거행하였다. 그러나 충무공 이순신(李舜臣) 장군같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하더라도 무인(武人)은 문묘에 배향될 수 없다. 특히 임금도 새로이 등극을 하면 반드시 성균관 문묘에 와서 인정덕치(仁政德治)의 결의를 다지는 고유를 행하였고, 왕세자도 책봉이 되면 문묘에 고유하여 성균관장으로 부터 스승을 배정 받고 제왕의 수업을 받았으며, 문민통치의 덕망을 쌓았다. 따라서 성균관은 학자를 양성하는 국가의 단순한 학문의 중심 역할만이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과 동시에, 민중을 교화하는 사회 계몽의 기능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성균관과 전국 365개 향교가 봄과 가을, 1년에 두 차례씩 석전례를 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학문 교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다.

2. 한국 유교의 교육

유교의 기본은 학문과 교육에 있다. 공자가 성인이 된 근거도 학문과 교육의 업적으로 평가되었다. 동양은 서양과 달리 공자탄생 이전부터 국가의 국립대학인 ‘태학’과 지방의 초등교육인 ‘소학’이 있어 학문탐구와 더불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최초의 대학은 고구려 소수림왕2년(서기 372년)에 태학을 설립하였고, 통일신라의 ‘국학’(경주향교), 고려의 성균관(개성향교), 그리고 조선의 성균관(서울 명륜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의 교과과목은 당연히 유가경전이 주를 이루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그 교육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의 역할이 되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사회에 대하여 문화발전과 민중계도에 지대한 작용과 영향을 끼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은 조선말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점에 의하여 모든 교육제도와 내용은 일본에 의하여 재단되었고, 우리의 전통적 교육은 맥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게다가 8·15광복 후 미군정은 우리를 다시 자신들의 교육과 정치 그리고 군사적 정략에 따라 미국식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오늘

날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일제 36년간은 일본에 의하여 한국의 민족정신을 말살하려는 책략의 일환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8·15광복이후는 미군정에 의하여 미국식 교육체제를 한국에 이식시키기 위한 고도의 사회 문화정책이 철저히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총독부는 일제 36년간 한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의 일환으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하였고, 우리의 전통적 국립대학인 성균관의 교육적 기능을 마비시켰다. 8·15광복 이후 1946년, 다시 미군정에서는 일본이 세운 경성제국대학의 명칭만을 '서울대학교'로 개칭하여 국립 종합대학체제를 갖추었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교육을 미국식 교육체제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초대 총장은 우리 나라 사람이 아닌 해리 B 엔스테드라는 미 육군 대위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수립되었음에도 국가는 서울대학의 국립대학체제를 바꾸지 않고, 오늘날까지 유지시켜 온 바 우리 나라 역사의 커다란 오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균관은 전국 유림이 각 향교의 재산을 일부씩 매각하여 1946년에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사립 '성균관대학교'와 유교의 전례를 담당하는 '성균관'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현재 성균관은 한국 유교의 본산으로 접하게 되었고, 그 외에도 유교의 교육은 조선시대의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서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유교의 경전은 주로 사서(大學·論語·孟子·中庸), 오경(詩經·書經·周易·禮記·春秋)으로 말해진다. 그러나 이는 대표적인 것일 뿐 그 외에도 효경(孝經)·의례(儀禮)·주례(周禮)·이아(爾雅)·춘추삼전(春秋, 左氏傳, 穀梁傳, 公羊傳)등을 포함하는 '십삼경'(十三經)이 있다. '경'(經)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않아도 버금가는 관련 서적 또한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다. 이러한 책은 대부분 국가를 중심으로 한 철학·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공동체 원리에 따른 '천인합일'사상과 개인적 삶의 원리에 입각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논리로 일관한다. 고구려시대이후 과거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다 이러한 경전들을 교과과목으로 설정하여 교육시켜 왔던 것이다.

유교에는 일반적으로 글을 읽는(공부) 순서가 있어 왔다. 글자(한자)를 어느 정도 익히면 먼저 『소학』(小學)을 공부하고, 이어 『대학』 → 『논어』 → 『맹자』 → 『중

용』→『시경』→『예기』→『서경』→『역경』→『춘추』의 순서로 익히도록 하여 왔다.¹¹⁾ 『대학』은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유교의 정치와 교육의 이념과 구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논어』는 주로 공자와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록으로써 인간관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맹자』는 주로 맹자의 정치철학과 인성론이, 『중용』은 유교철학의 핵심적인 ‘중정’(中正)사상이, 『시경』은 공자 이전에 이미 있었던 시 300여 편이, 『예기』는 인간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의 본질과 형식을 망라하였고, 『서경』은 요·순·우·탕·문·무·주공의 치적과 정치철학이, 『역경』은 자연의 법칙을 인간의 삶의 원리로 적용한 변화의 원리를 수록하고 있으며, 『춘추』는 공자의 유일한 저서로써 일종의 역사비판서이다. 유교에서는 이러한 책들을 통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성인이라는 참된 인간의 추구하고 안정된 국가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길잡이로 수 천년의 동양역사를 인도하였던 고전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의 교과내용은 미국식 교육체제를 기준으로 일관되어 있고, 전통적인 교과목도 일대 변혁이 있어왔다. 따라서 유교는 단순한 종교 내지는 철학의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만 1945년에 ‘유도회총본부’라는 전국유림을 조직하여 재단의 설립과 더불어 유교이념에 입각한 성균관대학교와 유교 종단으로서의 성균관을 재건하는 한편 유림조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가운데 유교의 의례와 일반에 대한 경전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유교의 의례는 일반적으로 관·혼·상·제례를 의미하는데, 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일반적으로 유교의 의례를 따랐으나,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한국 문화의 변화와 의례문화도 복잡한 양상으로 변모된 실정이다. 이러한 의례문화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혼돈을 초래하여 현대 한국 사회는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부패현상은 물론 각종 범죄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성균관대학교’는 유림이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영할 만한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새로운 경영재단(현재는 삼성재단)에 위임 운영하고 있으며, 1968년에는 유학대학과 유학대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후학을 배출하고 있다. 지금

11) 이러한 공부의 순서는 栗谷 선생의 『擊蒙要訣』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의 ‘성균관’에서는 유교교육원·한림원·예절학교·충효교실 등을 설치하여 유교경전에 따른 강의와 학문활동 그리고 의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종교단체에 비교하면 열악한 형편이다. 지방의 많은 234개 향교에서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의 운영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명륜대학’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유림은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나 사회정의를 위한 일은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하여, 근자의 유교는 일반대중들로부터 냉소 당하고 있는 형편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한국 유교의 교화사업

한국 유교의 교육적 바탕과 의례 및 교육사업은 앞단에서 대부분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전통적 유교의 교화사업은 교세확장과 교리를 일반에 전달하는 홍보등 특수 목적사업에 한하여 탐색되어야 한다. 과거의 전통적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사회일반이 유교적 풍토와 생활양식이 전체라고 할 수 있었다.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의하여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다종교 사회가 되었고, 그 만큼 다양한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자리잡혀 왔다. 현대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킨 서양적 풍토 속에서 한국 유교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더더욱 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다각적인 사업활동을 전개, 국민정신의 고양 그리고 현대에 걸맞는 예절과 윤리를 다각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하여 치밀하게 개발,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유교가 세계무대에 활보하고 한국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현대 한국 유교의 교화사업은 원시적이고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 맴돌고 있으며, 선비로서의 자격과 명분조차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세력을 확보하여 중심부를 차지하고 유림조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기형적 현상이 실재하고 있다.

한국유교의 구조는 성균관과 유도회 그리고 이 두 조직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단법인 성균관’이 현재 문화관광부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성균관과 지방의 향교는 주로 전례와 교리의 연구 및 집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성균관과 유도회는 타종교의 신도단체 성격을 지닌 유림의 회원확보와 조직 그리고 교화사

업을 기본으로 하며, 재단법인 성균관은 유림재산의 유지관리 및 유림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관장하는 3개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화사업은 16개 시도본부와 287개 지부로 조직된 유도회가 소관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산하 단체로 여성유도회와 청년유도회가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어 다양한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교의 교화사업은 무엇보다 도덕성 회복운동이 그 축을 이루고 있다. 유교의 종사인 공자를 기리는 공부자 탄신기념행사가 음력8월28일을 기하여 실시되며, 한편 공자 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마땅하다는 국민운동도 함께 벌이기도 한다. 또한 선현유적지 순례를 통하여 전통문화 보존사업을 전개하는 등 미약한 재정으로나마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교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격주간으로 '유교신문'을 발행하여 전국 유림에게 유료로 공급하고 있으며, 출판사업과 전통예절의 홍보와 계몽활동을 통하여 한국 정신문화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근자의 유교가 불행하게도 마치 전통적으로 이어진 호주제도의 유지나 동성동본 금혼제도만 수호하는 단체처럼 사회일반에 인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한민족의 전통적인 가족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비민주적인 정권이나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사업이나 국민운동에는 나서지 못하면서 유독 가족법에만 얽매어 전전공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냉소를 금치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유림도 마땅히 바른 말 옳은 주장을 해야하며, 불의에 대하여 항거하는 용기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로운 것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만나면 목숨을 던지라”¹²⁾ 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인·용(智仁勇) 삼달덕(三達德)을 온전히 갖추어 닦아오는 미래의 목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IV. 한국 유교의 미래와 전망

한국 유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고구려 소수림왕2년에 국립대학으로 창건한

12) 『論語』, 學而. “見利思義, 見危授命”

‘태학’에 연원을 둔다. 그 후 통일신라의 ‘국학’, 고려의 ‘국자감’과 성균관, 그리고 조선의 ‘성균관’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의 유림은 8·15 광복후 남북 각처의 모든 유림대표가 현재의 성균관 명륜당에 모여 김창숙(金昌淑)선생을 총수로 하는 ‘유도회총본부’를 결성하였고, 이어 성균관과 성균관대학교를 재건하였다. 그리하여 성균관은 명실상부한 한국 유교의 총본산이 되었으며, 성균관대학교는 유교의 학문탐구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순수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이와 같이 한국 유교는 ‘공부자를 만세종사로 삼고’ 도의의 천명, 윤리의 부식, 공덕의 작흥’을 목적으로, 중앙에는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가 있고 지방에는 234개 향교와 유도회 16개 시도본부 및 287개 지부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세계가 함께 21세기로 향하는 이 때에 과연 유교적 가치가 어떻게 기여 가능한 것인가?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로부터 근자 서구문명과 아시아적 가치와의 ‘문명충돌’을 예고하는 미국의 새뮤얼 헌팅턴 교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은 아시아의 유교적 가치를 매우 의미있는 가능태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래사회에 대한 기여 가능한 어떤 이론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또 어떻게 표출하여 세계화에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한국적 유교사회가 안고 있는 상황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보다도 오히려 한국의 유교적 관습은 (타 종교인까지도) 전국민의 의식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 설날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는 ‘민족의 대이동’은 이를 잘 입증하고 있으며, 전국적 유림조직이 또한 이를 말해 준다. 그것은 유교가 한국민족 체질에 걸맞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유교조직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크게 다음 4가지로 분석된다. 첫째는 구성원의 평균 연령이 약 70세라는 노령화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서구적 물질주의(황금만능주의)에 따른 젊은 층의 무관심이고, 셋째는 타종교와 달리 유림의 중앙 지도층 대부분이 유교이론에 관한 정통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이고, 넷째는 유교의 본령이 ‘교육과 학문’에 있음에도 교육자와 전문학자를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유교에 관한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중앙 고위직에서 유림조직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그것이 무엇보다 유교 발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조직의 신진대사운동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유교는 '시중지도'를 지향함에도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편 도덕구현이라는 사회적 역할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유교는 조직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대대적이고도 전반적인 개혁과 이론적 보완 없이는 닥쳐오는 세계화 시대에 낙오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유림은 대오각성(大悟覺醒)하여 새로운 시대를 향한 일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아시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통문화를 돌이켜 살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수 천년간을 유교문화권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서세동점으로 말미암아 유교문화는 그 세력을 잃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의식일반이 서구문화의 침투 속에 속수무책으로 영역을 빼앗겨 버린 지 이미 오래다. 근자에 이르러 유교는 다시 서양의 저명한 석학들로 하여금 아시아의 중심적 가치로서 매우 높게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미래의 지구공동체와 관련하여 서구사회가 안고있는 모순을 아시아의 유교적 가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다. 흔히들 말하듯이 다가오는 21세기의 미래는 세계화·정보화·전문화시대로 일컫는다. 그리고 동서의 많은 석학들은 이러한 미래사회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에 온갖 정력을 쏟고 있다. 영국의 토니 블레이 수상과 앤서니 기든스가 외치는 '제3의 길'이나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등이 그것이다.

한편 독일 마이츠대학의 만프레드 물스 교수는 21세기에 있어 아시아적 가치로서의 유교는 더욱 유효하다는 확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는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 주고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과 원칙을 동시에 중시하는 유교의 대표적 덕목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다만 아시아적 가치가 민주적인 철학이나 문화적 전통이 살아 있다는 주체적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문화 없는 세계문화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국의 진정한 발전은 보편적 세계문화와 특수한 유교적 한국문화의 조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더욱이 주목할 것은 '서구식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결론 짓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시아적 가치의 중심에 있는 유교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더불어 다가오는 새로운 밀레니

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려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V. 맺음말

유교는 아직도 종교냐 아니냐를 놓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이유는 원래부터 동양에는 ‘종교’(Religion)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요, 종교적 성격도 서양의 천주교나 기독교 또는 회교와 같은 기능과 성격을 갖는 서구적 시각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교의 생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신앙이 되는 객관적 대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그 신앙의 객관적 대상은 하늘에 버금가는 ‘절대적 인격자’가 존재한다. 그 ‘절대적 인격자’는 모든 인간을 포함한 만사만물의 삶과 죽음을 임의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적 존재’이다. 특히 이러한 신적 존재자는 ‘한 때의 인간’이었던 그러나 현재는 실존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며 또한 그를 믿고 의지한다. 사람은 바로 이러한 절대자를 신앙하며 그를 통하여 영생의 구원을 청하고 의지하는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유교는 ‘하늘’(天)이라는 절대존재가 전제되어 있으나, 공자가 하늘과 버금가는 신앙적 대상이거나 전지전능한 초능력을 가진 자 또는 영생의 구원을 안내하는 심판자는 더욱 아니다. 다만 그의 말이 자연의 법칙과 삶의 원리에 보편적으로 합당한 이론적 근거 때문에 따를 뿐이요, 다른 종교처럼 무조건적이거나 무목적적이 아니다. 때문에 종교성 문제가 상존한다. 현행법상 유교는 종교단체로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유교가 가지는 한국적 내지는 아시아적 영향력과 가치는 결코 과소 평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형성해 온 우리 한국인의 생활관습과 일반의식 속에 이미 2천년 이상 유교문화가 흠뻑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과 얇은 논리로 쉽사리 제거하려는 일은 일종의 도박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제를 안고 21세기를 마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유교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있다면 과연 미래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유교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더욱이 유교를 공격의 표적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의 유교는 더한층 거듭나야 할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유교가 미래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필자는 이미 앞에서 ‘대동사회’를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것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사회이론과 달리 사회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는 공동체주의적 사회이론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유교의 사회적 기능은 서구의 기계론적 사고와 달리 사회구성원들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전제한다. 유기체론은 어떠한 구성원도 나뉠대로의 제구실 제역할을 다하며, 상호 유기적 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통일체를 유지하는 이론체계이다. 그것은 곧 가족공동체 사회이론이었다. 또 다른 유교의 사회적 기능은 서구의 합리성에 대한 보완 기능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다운 인간을 위한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떠한 과학적 합리성도 인간적 도덕성이 결여된 합리화는 전 인류사회를 파멸로 이끌어 갈 원인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유교도 21세기 세계를 향해 참된 인간의 얼굴인 도덕성을 전제한 유기적 공동체사회, 곧 대동사회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만 살아 숨쉴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四書 (『論語』 『孟子』 『中庸』 『大學』)
 五經 (『詩經』 『書經』 『易經』 『禮記』 『春秋』)
 『漢書』, 『後漢書』
 『山海經』
 『擊蒙要訣』 (李珣)
 한국철학사연구회(1997). 한국철학사상사. 한울.

勞思光(민국70). 中國哲學史. 三民書局.

邊道殷(1994)역. 폴 케네디. 21세기 준비.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李揆行(1996)감역. 엘빈 토플러. 제3물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이희재(1997)역.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21세기위원회(1993). 미래전망 2020년의 한국과 세계. 서울: 동아일보사.

김성기(1999). 다종교사회와 유교의 종교적 의미. 종교교육학연구. 한국종교교육학회.